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소망

슬픔의 시대,
기쁨을
찾는
여정

빌립보서 4:4-7

2023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묵상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소망

슬픔의 시대,
기쁨을
찾는
여정

빌립보서 4:4-7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영적 순례의 길을 나서며 04

주제 성구 06

주제 해설 08

묵상집 사용 안내 11

재의 수요일 12	16 사순절 첫째주일	사순절 둘째주일 23
30 사순절 셋째주일	사순절 넷째주일 37	사순절 다섯째주일 44
종려주일 51	고난주간 현장기도 52	63 부활주일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소망

슬픔의 시대, 기쁨을 찾는 여정

이사야서 61:1-3
마태복음서 5:10-12
빌립보서 4:4-7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의 수십 년에 걸친 분쟁과 전쟁, 경제적 혼란,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두드러진 혼란과 무질서로 우리 일상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세계의 진보가 절정에 이른 것 같은 시대에 오히려 인류는 인간성 없이 내달린 자본과 눈부신 기술발전의 황폐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살던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경제 대호황의 시기와 정치적 안정기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었으나 동시에 불의와 불공평과 불평등이 만연하던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정을 찾으며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부르짖었지요. 2023년 오늘날 역시 불안한 시대에 증가하는 불의와 불평등 그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재난은 이 시대 작고 가난한 이들을 눈물짓게 합니다.

아픔과 슬픔의 시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절기를 맞으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사 61:3)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고난 중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새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고난 당한 이들의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불공정한 사회의 혼란과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둠과 죽음을 향해가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묻고 성찰해야 합니다. 죽음의 세상을 거스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과 희망의 원천으로, 이 시대 위로와 기쁨의 길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이 광 섭

이사야서 61:1-3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마태복음서 5:10-12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빌립보서 4:4-7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소망

슬픔의 시대, 기쁨을 찾는 여정

이사야서 61:1-3, 마태복음서 5:10-12, 빌립보서 4:4-7

정경일 | 평화와 신학

재난시대입니다.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태원 참사, 기후 위기..., 끝없이 이어지는 전 지구적 재난의 때에도 인간은 전쟁을 하고, 재난을 초래한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삶을 계속합니다. 재난 속에서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당하는 이들은 재난 이전부터 삶이 재난이었던 작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픔과 슬픔 속에서 기쁨을 어떻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중심 상징인 십자가가 보여 주듯 인생과 세계의 아픔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식하면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통은 부활 생명의 기쁨과 이어져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도 기쁨

을 감각합니다. 이 기쁨의 원천, 역설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고통받는 자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어머니인 유대교 전통도 고통과 기쁨의 공존이라는 신앙의 역설을 보여 줍니다. 히브리인이 유랑 생활, 노예 생활, 전쟁과 식민 지배와 같은 무수한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 강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은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앞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자신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기쁜 소식’을 믿으며 구원을 희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고 실현하신 하나님 나라도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이중적 억압 속에서 몸과 맘이 부서진 이들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스스로도 죄인이라 여기며 비참하게 살아가던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nobody)가 어엿한 사람 ‘썸바디’(somebody)가 되고, 특별한 존재 ‘스페셜바디’(specialbody)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노바디들이었던 자신들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신앙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시작한 초대교회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고통 없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 속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통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했고, 종교적·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고, 교회의 분열로 괴로웠습니다. 이처럼 삼중적 고통을 겪던 바울이, 당시 나이로는 노년인 50대 후반에 이르러 “사탄의 하수인” 같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박해를 받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의 분열 소식을 들으면서, 게다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던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의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쓴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고통의 사람’ 바울은 ‘기쁨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고통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했던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과 삶은, 재난과 참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프지만 외롭지 않게, 슬프지만 무력하지 않게 살아가는 지혜와 영성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끝없는 불행감과 불안감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것이,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비정한 세상에 용기 있게 맞서는 저항이 된다는 것도 깨우쳐 줍니다. 고통과 기쁨, 그 신앙의 신비와 역설을 묵상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목상집은,

-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여정을 따라가며, 아프지만 외롭지 않게, 슬프지만 무력하지 않은 십자가의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여정으로의 초대입니다.
-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순례를 통해 재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여, 이 시대 생명과 희망의 새길 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성경은 '새번역'을 사용하였고 다른 번역본을 사용할 때는 따로 표기하였습니다.

※ 목상집의 형식은 '제목-성서-목상글'입니다.

목상집을 적절히 활용해 개인, 혹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상집 제작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필진

정금교
누가교회

정경일
평화와
신학

임의진
순례자
복음교회

이현아
기독교환경
운동연대

그의 평화가 우리에게도

요한복음서 14:27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랫동안 평화는 안전의 다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벽한 힘을 통해 안전을 먼저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1980년대 세계가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하던 시절,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설치를 둘러싸고 사람들은 ‘드디어 <취약함의 창문(window of vulnerability)>이 닫힐 것인가’ 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취약함, 상처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보완되리라 기대한 것이지요.

그러나 <취약함의 창문>은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오히려 소통의 창구, 관계 시작의 창구가 됩니다. 벽돌이나 강철로 된 구조물에 창이 있다는 것은 그곳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겠지만, 그곳조차 벽돌이나 철로 막아버린다면 그 구조물 안으로는 빛도, 공기도, 소리도, 그 어떤 것도 드나들 수 없을 것입니다. 창이 있어야 햇볕이 들어오고, 공기가 통하고, 소리가 들리고, 관계가 시작되고, 서로 간의 이해가 가능해지지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상처받을 수 있음’의 정점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오신 것은 당신께서 직접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몸소 오신 사건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은 자신 안에 빛을 투과시키고, 소리를 전달하며, 누군가와 소통하는, 그러기에 상처받을 수도 아파질 수도 있는 ‘투명한 창’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평화는 낯설고 상처받을 수 있음의 가능성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용기 있는 자들의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이사야서 62:1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표준새번역)

천만 개의 촛불이 무능하고 불의한 정권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수가 모여 정치를 움직였다는 경험이 현실을 이길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정치인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되거나 나쁜 정책은 가난한 이들이 피해를 먼저 받습니다. 사회가 억울하게 가면 법의 적용 역시 억울하게 판결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들도 시대정신에 영향받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억울한 절망의 시대, 하나님만 쳐다보는 시절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까지, 공의가 빛처럼 드러날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비록 그늘에 앉아 힘들지라도 믿음을 갖고 기도합시다.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예레미야애가 3:2-3, 21-22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 그러나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공허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 콜카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고, 사후에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 성인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흑독하게 겪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겪었으니,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 안에는 하느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고통스럽게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실패한 신비가’일까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마더 테레사가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운 영적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런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와 선행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패한 어둠의 신비가가 아니라 끈질긴 사랑의 신비가요 활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맬컴 머저리츠는 마더 테레사의 어둠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시간에 마더 테레사는 타오르는 빛이 되었다. 잔인한 시간에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의 살아있는 육화가 되었다. 하느님 없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은총과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 예레미야도 마더 테레사처럼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있었지만, 깊은 묵상 가운데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내게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며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히브리서 10:24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신약성서를 읽다 보면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 13:34),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롬 12:10),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롬 14:13),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벧 3:8),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갈 5:13),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데 5:11),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약 5:16),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골 3:13),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히 13:1) 이렇게 예수님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깊고 풍성하게 경험했던 서로-관계성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와 초대교회의 삶에서 사랑은 사도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만의 구별된 의무가 아니라 ‘모두’의 공통적 의무였습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바랐던 것처럼 서로 사랑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그리스도인일 줄 알았습니다(요 13:35).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첫 그리스도인들의 서로-관계성, 서로-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마음을 쓰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선교는 그 사랑을 선한 일을 통해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말하는 용기

누가복음 1:46-48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신학자 도로테 쥘레는 자신의 책 『Hinreise(여행)』를 통해 인간의 온전함은 신을 간절히 구할 때,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의 복음이 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온전함’이 한 인간으로서의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행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결핍을 알아 신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그럼에도 그 자신이 누군가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친 두려운 상황과 자기 민족의 오랜 기다림의 현실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안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태에 대한 그의 순종은 자기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복’에 대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는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자신과 함께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에 근거했던 것이지요.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빈 곳은 빈 곳으로 남겨두어도 좋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삶의 ‘행복’을 말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과 희망

시편 9:18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고난받는 사람의 희망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표준새번역)

성서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의로 인해 차별받고 혐오 당하고 배제 당하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잊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무관심과 망각 속에 보이지 않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이지요.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의 가장 빛나는 정신은 가난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고,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들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예언자들을 보내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권력자들의 죄를 폭로하고 규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존 도미니크 크로산이 ‘노바디’(nobody)라고 부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의 가난한 자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희망의 원천입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일

디모데후서 3:14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교회가 세워져 가던 시절, 온갖 말과 교훈으로 복음을 혼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굳건하게 ‘진리 안에 머물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밤낮없이 간구했던 과부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비유를 통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눅 18:1)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주목하며 그가 보이신 진리 안에 머물라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에 머문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통한 과부가 날마다 간구의 자리로 나아갔듯, 끊임없이 진리에 주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에 머무는 일은 어떤 종류의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나라, 정의, 평화, 보편적 사랑과 같은 크고 고상한 진리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기도를 통해 그 진리를 성급히 다른 대체물로 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 진리 곁에 머물고자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록 절망적 상황이 닥치는 것을 막아낼 힘은 없지만, 그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그 절망 곁에서 다음의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용기 낼 수는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힘, 버티는 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라!

마태복음서 13:37-40, 4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 14:8)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가라지가 아닌 좋은 씨,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풍조는 가라지가 대접받고 있습니다. 남보다 훗칠하고 두드러져 보이는 게 가라지의 특성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라! 이제부터는 ‘욕망’을 ‘의미’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한 나무의 가지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증오와 차별, 혐오와 갈등, 우월감과 경쟁, 그리고 전쟁은 우리 모두를 어두컴컴한 지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길인 세상 풍조와 정반대의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아파도, 서럽고 쓰러도 마침내 우리는 거대한 우주적 정의와 평화, 생명의 큰 사랑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영적·사회적 분별의 지혜

잠언 2:11-12

분별력이 너를 지켜 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요즘 ‘개소리’라는 선정적 표현을 포함한 제목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대하여』, 영국 저널리스트 제임스 볼의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같은 책들입니다. 여기서 ‘개소리’는 영어 속어 ‘불싯’(bullshit)을 번역한 것입니다. 전에는 ‘헛소리’, ‘허튼소리’ 정도로 옮겼는데, 요즘 들어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악화하고 있어서인지 비판의 표현도 덩달아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개소리’가 왜 문제일까요? 제임스 볼은 ‘거짓말’과 ‘개소리’를 대조하면서, 최소한 “사실, 진실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꾸며낸 말”인 거짓말보다, “진실이나 거짓 어느 쪽으로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담론”인 개소리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진실엔 관심 없이, 오직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뱉는 말이 개소리입니다.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고도, 무고한 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정정이나 사과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모르쇠 하는 뻔뻔한 말입니다. 가짜 뉴스와 개소리가 판치는 탈진실(post-truth) 시대,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영적·사회적 분별의 지혜를 길러야겠습니다.

슬프지만 무력하지 않게

마가복음서 10:48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슬퍼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연민합니다. 그저 무력하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슬픔에 빠진 사람을 연민하고 동정하지요. 그러나 같은 불행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울부짖는 사람, 고통에 소리치는 사람들은 연민하려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해고되어 힘들어하면 연민하지만, 그들이 그 상황을 개선하려 하면 사람들은 연민의 마음을 바꾸어 그들을 불온한 사람들로 분류합니다.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이 당한 일로 눈물 흘릴 때 사람들은 그에게 연민을 보이지만, 그가 목소리를 낼 때, 가해자를 심판하려 할 때, 마치 엄격한 재판관이라도 된 듯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지요.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힘을 내려 할 때,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 목소리를 낼 때, 나아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외칠 때 사람들은 그로부터 가차 없이 등을 돌려 적대합니다. 바디매오를 향한 사람들의 연민과 동정은 그가 소리를 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존엄을 되찾으려 일어섰기에 가차 없는 억압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디매오를 발견하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에게 치유와 구원이 임했지요. 깊은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도 슬프지만 무력하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 모든 바디매오를 응원합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다

마태복음서 3:3-4

이 사람을 두고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가난한 이들의 생존과 관련된 경제 용어일수록 진실한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평화방송을 듣다가 뜻밖의 보석 같은 말을 얻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회자가 교황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고, 정부가 말하는 노동정책 언어가 정직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즉 정부가 노동의 경직은 노동의 안정으로, 노동의 유연성은 노동의 불안정이라고 정직하게 말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은퇴하신 전현희 선생도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도 바르다.”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이 말을 왜곡해서 사용하면 가난한 이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했고 그 일로 삶도 마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며 주의 길을 곧게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의 길을 내며 갑시다.

기후 위기와 인감도장

요한계시록 7: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군센 약속을 할 때 인감증명(인감도장)을 떼가야 합니다. 약속을 금세 깨버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서점에 들러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란 제목의 책을 매번 사오신다고 합니다. 이를 어쩐다지요. 수백수천 번 기후 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뒤돌아서 헛발질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닥쳐온 재앙이란 말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날씨의 변덕스러움은 세계를 모두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너무도 이 자연 세계를 파괴해 왔습니다. 소비와 욕망에 달뜬 80억 인구가 이 지구별을 괴롭히고 못살게 했습니다.

육지생물들은 평균 1년에 2km를 이동합니다. 다른 생물종도 모두 이동 중인데 매우 느린 속도로 살만한 땅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러나 재앙의 시간은 훨씬 빨라서 이동에 성공하기도 전에 대량 멸종하고 말 것이란 예상입니다.

돌아온 탕아에게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줍니다(눅 15:21). 반지는 곧 도장을 가리킵니다. 반지 도장으로 아들은 가업의 상속자로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 대자연에 대한 책임을 잊어선 안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작은 일부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며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습관, 이제 우리는 작고 단순하며 소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끼워주신 반지 도장을 헛되이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사야서 35:1-2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생명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이란 한 지역 안에 서식하는 생물 종과 유전자의 다양성, 서식 환경과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생태계 다양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이 땅을 공유하는 모든 생명 세계가 안정적인가, 건강한가를 판단하는 지표이지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생명다양성은 창조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감탄과 함께 성서에 기록된 최초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70-2012년 사이에 지구 생물 중에서 육상 생물은 전체 약 40%, 양서류와 같은 담수 생물은 80%, 어류 역시 40% 가까이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간의 무분별한 대량 포획, 서식지 감소와 변화로 의해 사라지는 생명들이지요. 그 외에도 앞으로 지구상에서 다시 못 보게 될 생명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라산 구상나무, 바다사자, 늑대, 표범, 따오기, 크낙새, 소똥구리, 맹꽁이, 사향노루, 버들가지, 장수하늘소, 여우, 검독수리, 큰논우렁이 등 수백 종이 더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의 가장 작은 자, 약자는 무참히 짓밟히고 서식지를 잃어 멸종의 위기에 놓인 이 힘없는 자연 생명들이 아닐까 합니다. 창조된 모든 생명이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생의 기쁨을 노래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호하시는 주님

시편 71:1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지난해 우리 사회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이태원 참사가 있는지 한 달 반 정도 지나, 부서진 가슴의 유가족과 그리스도인이 참사 현장 골목 앞 도로에 모여 앉아 ‘10.29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매서운 겨울 추위가 가슴을 부렸지만,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슴을 더욱 찡고 아프게 했던 것은 한 유가족의 비통한 호소였습니다. “저희 소란 피우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추운 날 거리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자기 생 다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 있는 그 아이들을 왜 범죄자 만듭니까. [...] 점점 억울한 일이 생겨요. 점점 가슴에 칼날이 하나둘씩 꽂히고요. 그 칼날 꽂힌 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유족들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아픈 말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이 정부와 사회의 위로를 받기는커녕, 수치스러운 조롱과 모욕과 혐오를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통받는 자에게 고통 그 자체만큼이나 아프고 괴로운 것이 수치심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통 속에서 주님께로 피해 보호를 바라면서, 수치 당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호소에 누구보다도 교회가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그들이 수치 당하는 일이 없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의 희망이 하나님이었든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세리의 비탄을 보다

누가복음서 18:13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누가 그에게 죄인이라고 명명했을까요. 망해버린 나라, 마음대로 수탈하는 제국에 짓밟히는 민족, 지켜 줄 지도자도 없고, 지지해 줄 공동체도 없이 홀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이 세리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무력함과 슬픔과 외로움을 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허덕이며 사는 이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마치 자기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 듯이 말쑥하게 성전에 나오지만 정작 주님은 거리에 계시고 사건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무데도 말할 곳 없어 기도조차 소리 죽여 하는 사람과 그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건 분명 은총입니다.

아래로 단단히, 그리고 넓게

아모소서 9:15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울의 명동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늘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 가장 화려하고 높은 빌딩들이 늘 어선 곳이 명동입니다. 그러나 빌딩이 아무리 높아도 땅에 발을 딛고 가난하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명동에 남은 유일한 재개발 미시행 지구였던 명동 2지구가 그런 곳이었지요. 먹자골목을 품고 명동을 드나드는 많은 이들에게 소소한 낭만과 즐거움을 제공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 전, 그곳 명동2지구에도 무책임한 재개발의 광풍이 휩쓸었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정성껏 가꾸어지며 장사하던 임차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흔들리는 삶의 터전을 붙잡아 보고자 애쓰지만, 그들의 얇은 뿌리를 흔들어대는 바람은 너무 거세기만 합니다. 자본의 무자비한 진군 앞에 쓰러져 간 이들은 단지 이들만이 아니었지요. 노점상인, 쪽방 주민, 철거민, 홈리스 등 도시 빈민들, 비정규직, 하청업체 부당하고 노동자들 등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도 쫓겨나고, 해고당하고, 뿌리 뽑힙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의 삶은 너무 쉽게 지워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약한 이들도 자기 터전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이를 위한 우리의 연대가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룸 단칸방살이

누가복음서 11:5-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꾸어 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 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1층집과 2층집이 보통이었는데, 1층집이라 하면 1층에 가축을 길렀습니다. 차가운 겨울엔 양이나 염소, 개와 나귀와 같이 생활했지요. 흙집이나 돌집은 햇살이 들지 않아 낮에도 등잔불을 밝혔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가난한 집, 비좁은 방의 풍경이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부자들은 대리석을 깔고 모자이크화를 새겼으며 회반죽 벽엔 통풍창을 냈습니다. 로마식 실내 수세식 변소와 욕조는 물론이고 물탱크, 다용도실도 갖추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쓰레기들을 모아 남서쪽 힌놈골짜기에 버렸어요. 분노를 모아 버리는 힌놈과 연결된 예루살렘 성문을 뚫문(Dung Gate)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뚫문 안쪽으로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향의 시골집도 모두 비좁고 퀴퀴한 흙돌집이었습니다.

조그만 판자집에 살던 사람들의 세세한 이야기를 다 아시는 예수님, 뚫문을 향해 드나들던 민중들과 너나없이 살갑게 사귀던 분. 부디 당신이여, 당신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를 가져서 마음이 외롭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해요

누가복음서 1:39-41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고지 받았지만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많았을지 지금 관점으로 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비슷하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던 엘리사벳이 참 든든한 후견자였을 것입니다. 한달음에 가서 만난 두 여자! 성서를 읽는 이도 가슴이 뛰겠지만, 여섯째 달인 뱃속 아기 요한도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뛰노는다고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두 여성의 연대는 같은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한 이들의 연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마리아 찬가에서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이 꿈꿔왔던 세상, 공의가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들이 높여지는 세상이라는 꿈이 아기와 연결됩니다. 메시아는 이 역사의식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작금의 모든 약한 이들의 연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려울지라도 이미 그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비움의 노래

마가복음서 12:42-44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렵돈 두 닢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 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어린이부 전도사 시절, 예배 후에 한 어린이가 헌금 바구니를 가리키며 내게 물었다. 저거 다 전도사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당시 어린이들이 열 명 정도 됐는데 보통 어린이들의 헌금은 부모님이 쥐여주는 돈 천 원씩이었으니까 저게 내 주급이면 월급이 4만 원이라는 셈이다. 나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물었다. 그 해맑은 어린이가 이어서 물었다. “그러면 저 헌금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옥상에 가서 불에 태워요?” 나는 교회 재정 자료를 보여주면서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무언가를 깨달은 그 어린이는 지금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우리들의 주머니 점점 비어갈수록 우리 안의 하나님 점점 넓어진다네. 나만 아는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남을 도와준대도 소용없지 않아요… 비어가는 나의 마음, 당신으로 채워 줘요 오직 당신만으로.” 봉헌송 노래를 불렀다.” (황무하, 『함께 부르기』에서)

교회 공동체의 돈이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땅투기나 돈 놀음에 사용하지 않고, 재정을 어린이까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어느 기관보다 재정이 투명하고, 배나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여윌돈, 남은 돈이 많기보다는 간당간당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또 비워 텅 빈 그릇에 ‘하늘 은혜’가 한가득 부어지는, 부족할 때마다 충분히 채워지는 기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암 디비나그라시아 마누엘

마태복음서 1: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한국에 산 지 23년된 그녀는 필리핀을 떠나 광주에 살며 광주복구 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교회도 많고 산도 많다고 느꼈지요. 이름이 길다고 인터넷 बैं킹과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습니다. 안된다, 개명하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온전히 적게 해 달라며 부당함에 맞게 되었습니다. 행정당국 규정상 주민등록등본에 적을 수 있는 이름이 최대 여덟 글자였어요. 그래서 메리암 디비나그라로 살아야 했지요. 그러다 2022년 8월에서야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든 이름을 명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이나 은행에서 항상 나는 ‘디비나그라 씨’라고 불렸어요. 처음에는 그게 한국의 문화인 줄 알았어요. 추후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십수 년 동안 아무도 나에게 ‘이건 문제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부당한 행정에 맞섰습니다. 결국 그녀는 메리암 디비나그라시아 마누엘, 그녀의 이름을 다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선주민에게 바라는 바가 있는데, 이주민이라고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주길 바란대요. 후배 이주민에게는 인생은 쉽지 않고, 공짜는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딸 둘을 낳고,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을 했습니다.

차별 대신 환대를

창세기 2:21-22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사람을 남자라 부르고 그 다음에 만드신 사람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두 사람을 ‘이쉬’와 ‘이샤’로 구별하였고, 사람들은 구별을 차별로 이해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나중에 만든 사람을 꼭 여자라고 보아야 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다른 또 한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듯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두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생소했으면 여자라고 이름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겪을수록 여자와 남자는 외모부터 내면까지 너무 다르잖아요. 보기에 자기와 너무 다른 사람, 하지만 그 차이에 감탄을 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달라서 겪는 고통이 안타깝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에 감탄하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내버려진 사람

누가복음서 10:30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야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내’가 그 내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그 사람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식민지에서 사는 사람 모두가 수탈당하고 버려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소연할 데 없고 보호 받을 데도 없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행인 역의 두 사람은 지도자 그룹이라 자기는 무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도 별수 없습니다. 강도당한 적이 정말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되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너나없이 강도당합니다. 이를 아는 게 ‘의식의 깨어있음’이라 할 만합니다. 깨닫게 되면 비로소 이웃이 보입니다. 내버려져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고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강도당한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어야 함을 말해 줍니다.

말없이 돌보는 사람

욥기 29:24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고통의 사람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말입니다. 참혹한 고통 앞에서 그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이야기지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욥은 가난한 사람을 구해 주었고, 고아를 보살피 주었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욥 29:14-16). 그는 고통받는 이웃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가 된 욥의 회고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오늘의 욥에게는 어제의 욥 자신과 같은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뛰어난 말솜씨가 있어야만 돌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이에게 말없이 짓는 부드러운 미소와 웃는 얼굴은 추운 겨울밤의 따뜻한 화롯불 같습니다. 그 작은 온기로 겨울 한기를 물리칠 수는 없지만, 겨울은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과 겨울을 견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친구에게, 일터의 동료에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온화한 미소 하나 건네야겠습니다.

별이 전해온 사랑

시편 8:3-4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을 떠올렸던 시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대부분 매개체를 통해 형성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지시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고 질문하는 전달자가 있다는 뜻이지요. 여성신학, 생태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퀴어신학, 생태신학 등은 여성, 자연, 흑인, 노예, 민중, 빈민, 퀴어와 같은 ‘중간에 선 자’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서구, 백인, 남성들, 지식인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며 하나님께 말(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 하셨는지를 발견한다면, 우리 역시 누구와 연결될 것인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로 말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슬픈 이, 억압받는 이, 묵인 이, 내어쫓긴 이들의 편에 서신 분이라면, 그와 연결된 우리 역시 이들의 자리에 함께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편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들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어딘가에서 슬피 우는 이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과 세상에 말 걸어보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를 찾느냐

요한복음서 18:5-6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전 30냥을 쳐서 받았습니다. 당시 송아지 6마리 값에 해당하고, 오늘날로 하면 2-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현상금이 걸린 몸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대낮에 활보할 수 없었고, 다락방을 구해 숨어든 뒤의 빵과 포도주의 만찬은 매우 비장했지요.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아마 그 포상으로 승진을 거듭하고, 훗날 고위 관직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불의한 권력은 눈에 불을 켜고 정적에게 죄목을 갖다 붙입니다.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고문 끝에 귀한 생목숨을 빼앗기도 했지요.

그와 반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참된 해방을 얻고 인생의 대자유를 얻고팠던 이들, 복음에 간절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찾아 나선 길인가요. 여기 예수님을 잡아줄 유다와 내통하면서 법정에 넘기고 십자가 형틀에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 변명이 항상 준비된 이들. 그러나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직업과 자리 때문에, 여론에 휩쓸리고 떠밀려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갈림길마다,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찬찬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우승

누가복음서 10:17, 20

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가 실력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 다들 좋아합니다. 2016년에 실적이 나빠 죄책감으로 자포자기에 빠져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였을 때 시골 마을 초등학교 여교사 요아나 폭스가 메시에게 보낸 편지글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고 메시는 6주 만에 대표팀 복귀를 선언합니다. 폭스 선생은 메시의 은퇴로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노력의 가치를 계속 배우며 그것이 인생의 가치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축구 얘기보다 한 번의 프리킥 성공을 위해 수천 번 연습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선생님이 있는 나라가 부러워졌습니다. 결과에만 열광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삶의 여정을 높이 사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닮았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의 길이 있을 뿐이라는 말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시편 57:8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우리는 흔히 어둠을 밝히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익숙하지요. 우리 내면의 어둠도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와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빛은 때로는 나름의 힘을 발휘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근원적 어둠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빛에 조금만 저항해도, 눈만 살짝 감아버려도 그 빛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새벽은 그저 저절로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적극적으로 '새벽을 깨우련다'고 노래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빛을 발견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회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용기, 어둠의 본질을 묵상하고 더 치열하게 씨름한 결과로 얻게 되는 빛,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빛도 들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절망에 침잠하기보다 우리 내면의 빛을 깨워보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땅을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요엘서 2:18

그 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모든 자연은 생명과 생존의 권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으며,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자연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자연이 주는 것 중 필요한 것을 사용할 권리일 뿐, 그 이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서는 지속적으로 지나친 부의 축적을 경계합니다. 자연이 준 것을 독점하고 필요 이상을 뽑아내 이익을 쌓는 일은 결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벌하실 때, 인간이 자연의 축복을 더이상 누릴 수 없도록 땅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 열매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자연을 회복하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과 자연이 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땅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며 깨져 있음을 고발하는 명징한 증거입니다. 생태 문제를 들여다보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종교적, 신앙적 행위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 파괴된 고통받는 땅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하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가슴애편’

누가복음서 7:13-15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가슴애편을 전라도 전역에선 ‘가슴애편’라고 합니다. 여수나 순천 지방에서는 ‘울떡증’이라고도 해요. 화가 나면 ‘벌떡증’, 서러운 마음이 깊으면 ‘울떡증’. 맘이 애리다, 맘이 쓰이다 하는 아픔을 가리켜 ‘애편’라 하고 여기에 가슴을 앞애다 붙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순례길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로 하신 일이 병을 고치는 일,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기적이었는데, 오늘 성서엔 ‘가슴애편’ 울고 있는 여인을 측은하게 여겨 위로하는 일, 그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 안겨주는 일,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보다 어머니인 여인에게 베푼 위로와 선물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뒤 놀라게 되는 건,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한치의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유가족 어머니 아버지의 피눈물과 호소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울지 말라’고만 했다면 예수님의 위로도 말뿐이었겠죠. 예수님은 죽었던 젊은이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계십니다.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음이고, 한 존재의 바탕입니다. 일어나 앉으며 말하지 않는 건 곧 죽음의 현상입니다. 죽은 자들은 일체 입을 다물고, 외면하며 침묵합니다.

오천명 평양냉면

마태복음서 14:20-21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오천 명쯤 되었다.

“옥류관 앞 줄 선 평양시민들 / 하루에 오천명 냉면 먹는다 하네 /
 좋구나 오천년 역사니 오천명 줄 서네 / 나도 저 줄 속에 서서 기다리다 /
 청진 앞바다 삼등 얼음 동동 떠내려오는 / 바닷물처럼 칼칼하고 /
 해남 땅끝 앞바다 모시조개 국물처럼 시원한 /
 평양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하락)” (곽재구 시인, ‘평양냉면’)

한술밥은 나누어 먹을 때 행복을 느끼죠. 고립된 개인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고, 나 홀로 평화의 축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남북의 해빙도 잠시, 현실은 너무도 얼어붙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평양방문과 온갖 교류 협력 행사들이 과연 사실이었나 싶을 지경입니다. 교회의 잦은 북한 방문과 평화실천운동도 까마득한 과거 일이 되었습니다. 코미디언 고영수 씨는 스포츠 중계 개그를 펼쳤는데, 유도 경기에서 ‘한판, 절반, 유효’ 같은 기존의 점수 득점 방식 말고 ‘기미, 조짐, 김새’ 뭐 그런 점수도 중간에 있다면 좋겠다더군요. 얼어붙은 한반도에 평화와 교류의 ‘기미, 조짐, 김새’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어둠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촛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오천 명의 옥류관 앞 줄 선 평양시민들, 여기 오천 명 ‘오병이어 기적의 밥상 공동체’ 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겨레의 소원은 오로지 평화와 통일, 교류와 협력입니다. 헤어진 일가 친척 반갑게 만나 모시조개 국물, 평양냉면 한 그릇씩 서로 떠주고 나누는 통일 잔칫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씨앗, 정의의 열매

야고보서 3:18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인간은 전쟁을 합니다.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총성처럼 울립니다. 재난도 멈추지 못하는 전쟁의 현실에서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오래된 라틴 경구처럼, 평화는 비현실적인 이상일 뿐, 정치·군사적 무력의 확보가 평화의 현실적 방도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과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부르는 전쟁의 다른 이름은 ‘정의’입니다. 그 어떤 전쟁 당사국도 자신의 전쟁 행위를 ‘불의’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전쟁은 ‘정의들’(justices)의 군사적 충돌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폭력 속에 죽어간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증언합니다. “모든 전쟁은 불의이다!” 폭력과 불의가 전쟁의 현실입니다. 전쟁으로는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A.J. 무스테는 말합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에 이르는 길은 평화입니다. ‘정의로운 평화’도 중요하지만 ‘평화로운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평화의 씨앗이 정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너의 몫을 찾으라

누가복음서 10:41-42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주방에 있기보다 예수님 앞에 있기로 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주방에 있기로 한 것과는 다른 선택이지만 그러기로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 가운데 머무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러고 싶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고 예수님은 그녀가 염려하고 들떠있다(upset)고 보았습니다. 영어 'upset'(속상한) 부분을 새번역은 '들떠있다'로 번역합니다. 두 어휘 모두 자신으로부터, 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평화와 화해가 깨져버렸기에 마리아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택한 좋은 일에 기뻐하는 태도가 화해와 일치를 가져올 것입니다. 분주하고 불안하여 이것저것 손만 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일치와 평화의 시작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목자

요한복음서 10:11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착한’은 고대 그리스어로 ‘칼로스’인데 ‘아름답고 순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순한 양들이 느끼는 감정이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란 말이 성경에 365번, “걱정하지 말아라”는 550번 쓰였다고 합니다. 안전한 양들을 위해 착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다해 양들을 ‘두려움’에서 지키고 보호합니다. 남미 엘살바도르의 순교자 로메로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제는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신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제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1977년 로메로는 60세에 수도 산살바도르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해 엘살바도르는 전체 국토의 60%를 14개의 가문이 차지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집과 땅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농민 반란으로 2년 사이에 무려 3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영적으로 개인주의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받은 이들에게 인내하고 견디면 머잖아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시간에 영혼을 구할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로메로는 예배 중 총격을 받고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우리 가운데 찌렁찌렁 살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구원이며 해방의 사역입니다. 아름답고 순한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슬픔이 슬픔을 위로합니다

마태복음서 5: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표준새번역)

슬픔은 사랑하는 대상—사람이나 사물—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슬픔도 깊고, 그래서 슬픔은 더 오래 머무는 감정이지요. 하지만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의 병, 우울이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슬퍼해 본 사람,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애끊는 상실의 슬픔을 가진 이에게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낫설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5.18 유가족을 만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도 팽목항을 찾아온 ‘오월의 엄마’들은 ‘사월의 엄마’들을 부둥켜안고 말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그리고 ‘사월의 엄마’ 박은희 씨가 이태원 참사를 겪고 가슴이 부서진 ‘시월의 엄마’에게 말합니다. “저도 자식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감히 여러분의 마음 다 안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잊지 않고 함께 하자고, 먼저 시작한 저희가 절대 포기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각자의 슬픔에 갇히지 않고 서로의 상실을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슬픔을 위로합니다.

혼돈, 공허, 어둠

예레미야서 4:23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표준새번역)

지난해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예배 주제 성구를 찾고 있을 때, 한 유가족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안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유가족 마음이 온통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기가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두 정부에서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진상규명 약속조차 하지 않은 새 정부가 들어선 때의 유가족 마음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보다 더 선명하게 묘사할 말이 또 있었을까요? 창조 설화를 빌려 역사 속의 고통을 표현한 이들은 4.16가족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다 사회의 거짓과 불의를 목격했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도 창세기 기사를 빌려 자신의 비탄을 표현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창 1:3) 빛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 있습니다. 공감 능력도 공공성도 없는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빛’이라는 말은 차마 못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혼돈, 공허, 어둠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교회에도 구원의 빛이 비치지 않을까요?

이제는 손과 무릎을 굳세게 하라

이사야서 35:3-4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 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이사야서의 시작에는 온통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현실에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심판을 하겠지만 이는 회복을 위한 전 단계였고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한 인물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의 일을 할 것이라 합니다. 이제 35장에 이르러 이사야는 백성에게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많은 시련과 두려움을 겪었을 백성에게 이제는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소식,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전언은 너무나 희망 가득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명령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에 우리 역시 자신을 다잡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은 시련과 분노로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고 어찌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레미야서14:8-9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려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 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컸고 돌이키실 뜻이 없어 보였지만 예레미야는 읊소를 합니다. 나그네와 지나가는 행인처럼 행하시냐는 선지자의 호소에 눈물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직고하는 재난은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지구의 생태계 시계는 멸망을 예고하며 재작거리지만 오늘의 탐욕은 포기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좀 더 갖지 못하는 불안과 우울함이 도시와 골짜기와 우리 안방까지 깊이 들어옵니다. 너나없이 불안하고 긴장합니다. 권력을 잡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사람을 쥐어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대책 없는 정부와 대안 없는 정치인들이 우물거리는 중에 더 약한 자부터 죽어납니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고 해고와 중노동으로 죽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속에서 우리의 희망은 주님뿐입니다.

이토록 섬세한 돌봄

시편 104:10-13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 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풀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귀입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집단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의 인근 지역에 사는 모든 조류를 산 채로 땅속에 묻어 버리는 일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이미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류독감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지켜 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이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논리로 선택한 방식은 반생명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위협합니다. 살아있는 닭과 오리가 땅에 묻힘으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땅이 지나친 부담을 갖는 것은 자명하지요. 또한 그 닭과 오리를 산 채로 땅에 묻는 사람들의 정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백만의 사람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사람들의 회고를 보면, 처음엔 끔찍하고 무서웠지만 점점 대담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닭과 오리를 파묻고 있는 우리 역시 그런 식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개별적이고 섬세한 돌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그 아래 사는 모든 생명의 필요를 꼼꼼히 채우듯,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에 따른 ‘한 덩어리’로 대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생명, 각자의 형편대로 세심히 돌보십니다. 우리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이 섬세한 돌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신과 주술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마태복음서 5: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미신에 쉽게 빠져듭니다. 행운, 정신력, 운명, 징크스, 사후 세계, 악령 등 마술적인 힘을 의지하지요.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가 하면 반대로 본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성은 매우 느리고 차분하며 논리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그러나 본능은 자동적이며 감정적이고 연상적입니다. 마술적 사고는 본능에 가깝지요. 염력이나 초능력을 신봉하고 초월적이며 황홀한 감정을 좋아하는 이들은 미신에 끌리고 솔깃합니다. 징크스와 같은 저마다의 경험은 자아 행동을 위축시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난 뒤에 자애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은 부정적인 주체 편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어떤 행위자가 숨어있다는 믿음이지요. 그래서인지 불행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미신적 종교가 더 왕성하다고 합니다.

‘좋은 행실’이란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산상수훈을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니라 투박투박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적과 요행을 바라는 삶을 가리켜 희망이라고 하는 건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노동과 휴식이 균형된 삶, 소중한 가족과 건강, 일할 수 있는 직장에 감사해야 합니다. 직장과 임금을 보장해주는 건 기본적인 생명의 보살핌입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오르면서, 좋은 행실들로 우리의 생이 총합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경건과 사랑

베드로후서 1:7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표준새번역)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경건하지만 사랑은 없는 종교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경건도 사랑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은 어떤 걸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약 1:27)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는 외적 경건에만 집착하는 무정한 유대 종교에 도전하셨고, 우애와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를 실현하셨습니다. 스승 예수님에게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배우고 체험한 베드로는 경건에 우애를,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우애와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애를 나누는 자매형제로 지내며,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내던져지고 꺼져가는 불씨들

마태복음서 12:20-21

칭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정.우.형. 그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기사였고, 노동자였고, 조합원이었습니다.

어깨 걸고 함께하던 두 명의 동지(최종범·염호석)를
연이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냈어도
삼성의 노조 탄압은 여전하였기에
그는 동료와 동지들을 지키고자 자신을 희생해 가며
사측의 취업규칙 개악에 맞섰으나
삼성의 칼바람은 더더욱 거세지기만 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정우형은 삼성이라는 이름마저
자신의 삶 속에서 지우려 노력하였으나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처럼 삼성의 '그린화'(노조파괴 공작)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동지들을 지키고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이 주신 생명 연장의 시간,
그 7년의 시간 동안 정우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복직 투쟁을 다 하였으나
삼성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정우형은 자신에게 남은 단 하나 목숨을 걸고 삼성에 항거하였습니다.

주님,

그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정우형이 사랑하고 정우형을 사랑하는 남아있는 저희들은

정우형의 십자가를 이어받아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삼성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삼성은 왜 노동자의 죽음마저도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언제쯤이면 삼성의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종인 저희들로서는 이 모든 것이 힘듭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속히 삼성이 정우형과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여

250일이 넘게 저 차가운 냉동고에서 저희만을 기다리는 그를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떠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삼성에서 다시는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정우형을 기억하고 아파하는 많이 동지들이

평온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 정우형의 사랑하는 가족 이인숙

배제와 차별 너머 더불어 사는 세상

누가복음서 8:19-21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하나님,

고향에 떠나 한국 땅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과
이주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타국에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며
적응하기 힘든 타 문화권에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친구도 없고 낯선 땅으로 옮긴 이 곳.

현지 언어, 문화, 생활 등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주민과 이주여성들의 고충을 위로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타국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아픔과 질병이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의 불안과 큰 스트레스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건강에 더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일하고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주민과 이주여성들이 가정, 직장, 사회에서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차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과 혐오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터를 잡은 멍 예양심(맹영심)

고통의 십자가로 연결된 약속

이사야서 42:14, 16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혈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 눈 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기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당신 앞에서

저희는 당신을 대신해 변명합니다.

‘당신은 함께 계시다고, 당신은 함께 슬퍼하신다고,

당신도 우리만큼 아프시다고.’

그렇게라도 당신이 계시다고 외쳐야 저희는 버틸 힘을 찾습니다.

죽음의 궁지에 몰려서도

‘이 잔을 거두지 않아도 나는 마시겠다’고 호기롭게 말해야

당신의 존재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 주님도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도 궁지에 몰려서도 두려움과 절망에 먹히지 않게

당신을 지켜 나 자신을 지키려고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내 아이도 못 지켰으면서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럴 때마다 길가에 핀 꽃을 생각합니다.

밟히고 꺾여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작은 들꽃 앞에서
‘그래 네가 이겼다’고 말했던 순간의 경건함을 기억합니다.

불의 앞에 지지 않는 꽃꽂함과 꽃 하나 피어내는 여유가 경건함이라면
슬픔 속에서도 기어이 웃어보겠습니다.

다행히 당신이 보내주신 선한 이들이 저희와 함께 있고,
누군가에게 간절했을 이 땅의 시간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의 기다림의 시간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속 시원한 진상규명과 마땅한 책임자 처벌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꼭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가 넘지 못하는 산을 넘어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기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매일을 한숨과 고통 속에서 이 끝이 어디냐고 외치는 자들에게
주님, 기쁨으로 평화로 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단원고 유예은 엄마 박은희 전도사

공멸과 공생의 갈림길에서

창세기 33:4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연일 남과 북, 북과 남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측은 계속해서 전쟁 연습으로,
북측은 미사일 발사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긴장의 수위가 점점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전쟁의 위기로까지 치달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한반도에 임하셔서, 남과 북, 북과 남이
갈등과 반목보다는 평화와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또한 한반도 주변국들도 지금의 긴장을
자국의 이익으로만 썬하지 말고,
평화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 버린 동북아시아에
 군비경쟁을 그치게 도와주십시오.
 평화를 통한 대화와 외교 수단만이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십시오.

화해의 하나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갈등과 반목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적대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을 주거나
 해결의 실마리조차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금 팽팽한 대결 구도로
 한반도의 전운이 감도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공멸임을,
 어느 누구도 이익을 취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소서.

현재, 한반도에 평화의 지혜가 필요하고,
 오직 평화가 답임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남기평

죽음으로 건네준 생명, 사랑, 사람

마태복음서 27:45-46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이천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차별받는 자와 핍박받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그리고 2023년 지금 이곳에
가난한 자와 차별받는 자와 핍박받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이태원의 좁은 골목 바람에 흩날리는 옛된 얼굴의 사진 속에서,
지하철을 타는 것조차 차별과 배제로 점철된 전쟁터로 만들어 버린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웃의 애통에 함께 아파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스러운 탄식과 저항의 몸부림에서
시선을 돌려버렸음을 통회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사랑과 연대를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것이

어느 누구의 특권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이어진 삶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회에

“아니다”라고 외치며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존엄’이라는 동일한 가치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가 누군가의 ‘존엄’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세상을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고 되찾아 가는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박은슬 활동가

부활 전 토요일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마 26:39)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마 27:46)

세상이
어둠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소망!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빌 4:4)
고통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했던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과 삶은, 재난과 참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프지만 외롭지 않게, 슬프지만 무력하지 않게 살아가는 지혜와 영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의 삶도 기꺼이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없이 불행할 것 같은 불안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과 위기, 억울함으로 가슴치는 긴긴 시간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왜 나를 버리셨냐는 고통과 탄식조차도 하나님께 바쳤던 예수님은 결국 세상에 없던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드리는 한 줄기 노래를 다시 사신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불의하고 비정한 세상에 용기가 되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소망

슬픔의 시대,
기쁨을
찾는
여정

2023년 2월 6일 초판 1쇄 인쇄

2023년 2월 9일 초판 1쇄 발행

역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회

펴낸이 이흥정

펴낸곳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706호

편집책임 강석훈 서범규

전화 02-743-4471

팩스 02-744-6189

디자인 동방기획(02-2277-0365)

Copyright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3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상집 사용 외에 다른 목적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고통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했던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과 삶은
재난과 참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프지만 외롭지 않게, 슬프지만 무력하지 않게
살아가는 지혜와 영성을 가르쳐 줍니다.

끝없는 불행감과 불안감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것은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며
불의하고 비정한 세상에 용기 있게 맞서는 저항이 됨을
기쁨으로 알아가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